# 세계 청년불자들, '한마음'으로 뭉친다

## 한마음선원, 7월 30일부터 세계청년 연합수련회 개최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세계청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한다. 세계청년 연합수련회는 1972년 대행 스님이 생활 속 마음공부의 터전으로 한마음선원을 경기도 안양에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지원 청년들의 모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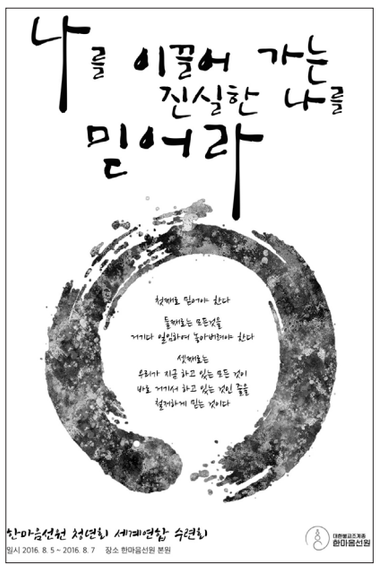
한마음선원은 국내 15개 지원, 국외 10개의 지원을 두고 있으며 이번 연합수련회에서는 각 지원에서 활동하는 청년 불자 중 35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한마음선원은 불교계에서 청년 불자들의 활동이 왕성한 대표적인 사찰이다. 청년 불자들은 이번 수련회에서 한마음 원리에 대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내면의 참나를 더욱 발현시키는 계기를 갖는다. 또 함께 공부하는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체험을 공유한다.

먼저 행사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를 주제로 국외지원 연합수련회가 열린다. 국외지원 연합수련회에는 한마음선원 미국 뉴욕 · LA · 시카고 지원, 캐나다, 태국, 독일,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 청년 불자들 51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음성에 위치한 광명선원에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한다. 이들은 템플스테이에서 발우공양, 단주만들기 외에 촛불재, 스님들과의 담선을 통해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불교의 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관조하게 된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는 국내 각 지역의 유서 깊은 불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견학 투어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8월 1일부터 부산 일대를 견학하고, 2일 문무대왕릉, 감은사지, 불국사, 석굴암 등 경주 지역을 돌아볼 예정이다. 이어 3일에는 문경새재길 산책과 래프팅 체험, 4일에는 통일전망대와 인사동과 경복궁 견학과 함께 안양 본원에서 세계연합 수련회 행사에 합류한다.



세계청년 연합수련회 포스터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세계 청년불자 350명 참여**
**불교문화유산 견학 · 담선 진행**

8월 5일부터 7일까지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는 '나를 이끌어가는 진실한 나를 믿어라' 라는 주제로 한마음선원 청년회 세계연합 수련회의 본 행사가 진행된다.

청년 불자들은 법당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각 지원과 청년회 소개, 조별 담선, 촛불재 등의 프로그램과 노년의 대행 스님이 주석했던 서산정 참배, 최초로 중생구제를 위한 원력을 펼쳤던 치악산 견성암 참배 등을 통해 대행 스님의 마음공부 터전 마련에 대한 뜻을 되새기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는 현재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마음선원 측은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세계 각국 청년불자들의 열정과 패기를 모아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31)470-31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생명나눔 새 홍보대사 이광은 · 이윤수

## 7월 14일 위촉장 전달 "생명나눔 희망 전파할 것"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7월 14일 2016 홍보대사로 이광은 LG트윈스 前 감독과 이윤수 의학박사를 위촉했다.

먼저 이광은 감독은 몇 년 전 생명나눔을 통해 장기기증을 서약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등 인연을 맺어왔다. 이 감독은 "오래 전 지인을 통해 이사장 일면 스님을 알게 됐다. 스님이 하시는 생명나눔 캠페인이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해 동참해왔다"며 "앞으로 야구계에도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이윤수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실천에는 선뜻 나서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에 생명나눔 정신을 확산하는 일에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이사장 일면 스님은 "건강한 한 사람이 뇌사시 장기기증을 한다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 자체가 매우 의로운 일"이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은 감독은 前 LG트윈스 · 연세대 야구부 · 배제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을 역임한 바 있으며, 1984년 최다승리타점상 및 골든글러브(3루수), 1985~1987년 3년 연속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윤수 의학박사는 1981~1984년 이화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1998~2000년 열린의사회 회장, 1999 연세대 외래교수 등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성과학연구소장, 한국전립선관리협회 감사,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박아름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7월 14일 법인 회의실서 2016 새 홍보대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 화성 신흥사, 명상템플스테이 마련

## 어린이 7월 29~31일, 성인 8월 20~21일

여느 해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번 여름, 명상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템플스테이가 화성 신흥사에서 열린다.

신흥사(주지 성일)는 7월 29~31일 경내서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명상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주제는 '라훌라처럼 우리도 밀행제일 부처님 아들이 되자'. 준비물은 세면도구 · 여벌옷 · 운동화 · 물놀이용 신발로 간편하다.

신흥사 어린이 템플스테이의 가장 큰 장점은 참가비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신흥사가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 부처님교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자리 잡은 문화다. 어린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공원 조성의 공덕을 회향하기 위한 것이다.

2박3일간의 템플스테이가 끝난 뒤에는 부처님교화공원 합장주와 손수건, 기념티, 수료증 등이 주어진다.

아울러 8월 20~21일에는 고등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50차 성인명상 템플스테이로 행복한 마음챙기기'가 열린다. 성인 템플스테이 참가비는 4만원. (031)357-2695 윤호섭 기자

# 제주불교신문, 1000호 맞아 가파도 대중공양

## 7월 22일, 지역불심 살리고자 재능 · 재보시 후원받아
## 마을회관서 이 · 미용, 음성공양 등 주민위한 축제 마련


가파도 내 유일한 사찰인 대원사 전경.

제주불교신문(대표이사 허운)이 지령 1000호(8월 5일자)를 앞두고 가파도서 '나눔 실천의 장'을 연다.

제주불교신문은 1000호 발간에 앞서 기념행사를 대신해 제주불교 정론지로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불법정론 불국정토'라는 기치를 내걸고, 소외된 이웃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주제는 '섬 속의 섬 부처님(가파도 주민)께 공양올립니다'.

제주불교신문 측은 "가파도 주민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민간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섬 안에서 독특한 공동체를 이뤄 생활해왔다. 하지만 2009년 가파도청보리축제가 열리면서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 지역공동체에 자본의 논리가 개입되면서 주민 간 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서 "이를 부처님의 가피로 감싸 안은 게 가파도서 유일한 사찰인 대원사(주지 혜융)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근래에 기독교계에서 선교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 · 미용, 의료봉사, 노래자랑 등 공격적인 물량공세를 펼쳐 불교적 정서가 옅어지고 있다"며 "대원사 요청과 함께 제주지역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 가파도 주민들에게 나눔 실천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불교신문은 7월 22일 가파도 마을회관서 해녀들의 작업시간을 배려해 행사를 개최, 지역민들에게 이 · 미용과 음성공양(민요), 점심공양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여법한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 제주도내 사부대중에게 행사 취지를 알리고, 재능 및 재보시를 후원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대원사 주지 혜융 스님은 "섬 지역주민들은 교통수단이 불편해 시내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이 · 미용 등을 하기 어렵다"면서 "불심에 눈 뜬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을 다해 공양을 올리며 도서지역 이웃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능 및 재보시를 희망하는 이들은 후원계좌(농협 302-0735-0318-01)로 성금을 보내거나 (064)-755-2203(제주불교신문)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불교신문은 1989년 8월 1일 〈제주법보〉로 출발해 월간 4면, 격주간 8면, 주간 12면 등으로 증면했다. 정법수호와 30만 제주불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포교지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파라미타 사경공모전 대상 광동고 '독차지'

## 입선 포함 66점 우수공모작 선정
## 7월 23~25일 여름캠프서 전시 계획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파라미타)가 주최한 제19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서 광동고 학생들이 대상인 문체부장관상과 봉축위원장상을 독차지했다.

파라미타는 "지난 5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한 사경공모전 작품 심사결과 입선 포함 총 66점을 우수공모작으로 선정했다"고 7월 12일 밝혔다.

공모전서 광동고 3학년 김성하(문체부장관상) · 이지영(봉축위원장상) 학생은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상(동국대 총장상)은 박소희(동대부여고1) · 이승헌(동대부중2) 학생이 수상했다. 이외에 우수상 6명, 장려상 10명, 특선 10명, 입선 36명 등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사경공모전에는 전국에서 1만5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45개 단체 작품 중 470여 점이 자체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추천작은 6월 28일 파라미타 자체심사와 7월 4 · 8일 전문가 심사를 거쳤다. 심사위원장은 전통사경 기능전승자인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 명예회장이 맡았으며,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포교부장 무각 스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김경호 심사위원장은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래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공덕의 싹을 틔운 셈"이라며 "수상 여부를 떠나 사경작품에 쏟아 부은 정성을 부모형제, 친구, 이웃, 나아가 사회에 아름답게 회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상자는 파라미타 홈페이지(www.parami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파라미타는 오는 23~25일 수원 일원서 열리는 제19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에서 사경공모전 우수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캠프에는 파라미타 청소년 회원 1000여 명이 참가하며, 문화재답사와 봉녕사 탐방, 전통문화체험활동, 청소년백일장, 음악놀이축제 등이 펼쳐진다. 윤호섭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8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전생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개인상담 및 공 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청강 후 등록 가능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